

# 『1872년 郡縣地圖』의 소장 현황과 장황 형태

김 성 희 \*

- 
- |                      |                      |
|----------------------|----------------------|
| 1. 서론                | 3. 1872년 군현지도의 장황 형태 |
| 2. 1872년 군현지도의 소장 내력 | 4. 결론                |
- 

**초록:** 조선시대 관찬 군현지도집의 마지막 성과물로 평가되는 『1872년 군현지도』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군현지도의 일부 책의(冊衣)에는 지도의 완성 시기가 1872년 3월에서 6월로 표기되어 있어 약 4개월이라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지도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도별로 수합된 지도들은 총 461장에 이른다. 이전의 관찬 군현지도집의 형태는 도별로 둑어 책 형태로 편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1872년 군현지도』의 장황은 각 군현의 지도가 독립된 첨(帖) 형태로 되어 있어 주목된다. 지도의 장황 형태는 지도의 제작 목적이나 사용 방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1872년 군현지도』 소장 상태는 원형이 아닌 개장(改粧)된 이후의 모습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872년 군현지도』의 상태조사를 통해서 소장 현황을 파악하고 장황 형태의 원형을 복원하여 지도의 제작 목적과 실질적인 이용 방법을 추정하였다.

**핵심어 :** 1872년 군현지도, 관찬지도, 군현지도, 흥선대원군, 장황

---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0628ksh@naver.com).

## 1. 서론

『1872년 군현지도』는 조선시대 관찬 군현지도집의 마지막 성과물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sup>1)</sup> 전국에서 도별로 수합된 지도들은 경기도 40장, 충청도 52장, 전라도 84장, 경상도 106장, 강원도 28장, 황해도 42장, 평안도 85장, 함경도 24장으로 총 461장에 이른다. 지도의 형태는 각 군현지도가 첨(帖)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일부 책의(冊衣)에서 확인되는 지도의 완성시기가 1872년 3월에서 6월로 표기되어 있어 약 4개월이라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지도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2)</sup>

『1872년 군현지도』의 제작 배경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개혁 정책과 관련된다. 당시 조선의 혼란스러운 정치사회와 서양 열강들의 공세가 강화되던 국제정세 속에서 정권을 잡은 흥선대원군은 오랜 세도정치로 쇠퇴해진 왕권을 강화하고 삼정 문란으로 백성들이 겪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하였다. 더욱이 병인양요(丙寅洋擾)와 신미양요(辛未洋擾)로 두 번의 양난을 겪은 후에는 국방 강화정책을 강구하였다. 『1872년 군현지도』에는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새로운 정책들을 상징하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1) 1872년에 제작된 군현지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유물명이 없다. 연구자에 따라 고종대 군현지도, 조선후기 지방지도, 1872년 군현지도, 1872년 지방지도, 1872 지방군현지도 등으로 지칭되어 왔으나, 본고에서는 지도에 표기된 同治十一年의 제작시기와 전국의 군현을 대상으로 그런 지도가 수합된 지도집의 의미를 포괄하여 『1872년 군현지도』로 지칭하여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양보경, 1995 「조선시대의 지방지도: 고종대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69-70면; 배우성, 2005 「1872년 군현지도 제작의 배경」, 『조선후기 지방지도: 경기도편 해설색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7-9면; 김기혁, 2007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조선 후기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30-3, 한국학중앙연구원, 119-142면.
- 2) 경기도 「음죽현지도」 책의에 “同治十一年三月”, 강원도 「울진현지도」 책의에 “同治十一年四月”, 평안도 「평양부보산진지도」 책의에 “同治十一年六月”, 「영변부지도」 책의에 “同治十一年四月”, 「자산부지도」 책의에 “同治十一年五月”, 「평양부보산진지도」 책의에 “同治十一年六月”, 「강서현지도」 책의에 “同治十一年四月”, 함경도 「삼수부지도」 책의에 “同治十一年三月”의 기록이 확인된다.

병인양요 이후 병사들의 조총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화포청(火砲廳)과 포수청(砲手廳)이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 지역의 지도를 중심으로 확인되며 서양세력의 침략에 반대하는 투쟁 의지를 고취하고자 세운 척화비(斥和碑)의 모습도 일부 경상도 지도에 그려져 있다. 1865년부터 1871년까지 서원 혁파를 단행하며 훼철된 서원이 기록되었고 환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자치의 마을 단위로 공동 운영하던 사창(社倉)도 지도 곳곳에 표시되어 있다.

또한 『1872년 군현지도』에는 군현에 소속된 진보(鎮堡), 성(城), 목장(牧場) 등 지방 군사시설을 별도로 그린 지도 140장이 포함되어 있어 군사적인 이용 목적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72년 군현지도』가 편찬되기 한 해 앞서 1871년에는 전국의 읍지(邑誌) 편찬이 시행된 바 있고 이 읍지들의 내용에도 영(營), 진(鎮), 역(驛) 등의 군사적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전 국토의 실정과 군사력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미 187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871년에서 1872년 사이에 국가에서 주도하여 전국의 지리정보와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는 1866년 병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의 삼군부(三軍府) 설치 및 군사제도 정비와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1872년 군현지도』는 흥선대원군 정권에서 추진한 개혁성과물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선말기 지방사회의 모습과 역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특히 『1872년 군현지도』는 이전의 관찬 군현지도집과 달리 도별로 장책(粧冊)되지 않고 각 군현의 지도가 독립된 첩 형태로 장황되어 있어 주목하였다. 국가사업으로 시행된 군현지도집은 지도의 형식이 통일된 지도책(地圖冊)의 형태로 편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8세기 중반 『해동지도(海東地圖)』(古大 4709-41)와 18세기 중후반에서 19세기에 편찬된 『여지도(輿地圖)』(古 4790-68), 『지승(地乘)』(奎 15423), 『광여도(廣輿圖)』(古4790-58) 등은 모두 책 형태의 군현지도집이다.

지도의 장황 형태는 지도의 제작 목적이나 사용 방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1872년 군현지도』 소장 상태는 원형이 아닌 개장(改粧)된 이후의 모습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872

년 군현지도』의 상태조사를 통해서 현재 소장 현황을 파악하고 장황 형태의 원형을 복원하여 지도의 이용 방법을 추정하고자 하였다.<sup>3)</sup>

## 2. 1872년 군현지도의 소장 내력

『1872년 군현지도』가 소장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고지도가 약 220여종, 1,100여책(첩), 6000매에 달한다. 정교한 양식과 아름다운 회화성을 지니는 조선시대 고지도가 대부분 유일본으로 채색필사본과 목판본이 16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있으며, 국가 기관에서 제작한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도 포함되어 있다. 유형별로는 세계지도(世界地圖) 24종, 전도(全圖) 53종, 도별지도(道別地圖) 20종, 군현지도(郡縣地圖) 53종, 외국지도(外國地圖) 32종, 관방지도(關防地圖) 13종, 기타 26종이 있다.<sup>4)</sup> 특히 군현지도는 타 기관에는 거의 없고 규장각 소장본이 대부분이다.

그중 『1872년 군현지도』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규장각도서(奎章閣圖書)로 분류되어 있다.<sup>5)</sup> 경기도 지도부터 함경도 지도까지奎10342에서奎10696까지의 유물

3) 『1872년 군현지도』461장에 대한 조사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의 도움을 받아 2013년 3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1872년 군현지도』의 소장 상태를 확인하고 지도와 표지의 크기, 지도가 접힌 선, 지도의 수정내용, 안료 상태 등을 함께 조사하였다.

4)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규장각 명품도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102면.  
 5)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도서들은 크게奎章閣圖書,一般古圖書,文庫本古圖書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奎章閣圖書는 1911년 조선총독부로 이관되기 전에 규장각, 왕실, 史庫, 각종 관아 등에 소장되어 있다가奎章閣에 수집된 도서와 조선총독부 참사관분실에서 수집한 도서들로 '奎'로 시작되는 도서 번호가 부여된다. 조선총독부로 이관된奎章閣 도서는 조선총독부 학무국과 1928년 경성제국대학을 거쳐 해방 후 국립서울대학교가 설치되면서 서울대학교 부속 도서관에 이관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수집된 도서는一般古圖書라 불리우며, '古'로 시작되는 도서번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기증한 개인 소장 고도서를文庫本古圖書라 부르는데, 이 책들에는 기증자의 호가 도서 번호 앞에 붙어 있다. 양보경, 1992 「18세기 備邊司地圖의 고찰-奎章閣 소장 道別 郡縣」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도별로 순차적으로 불인 것은 아니다. 경기도 지도의 경우는 奎10342부터 奎10379까지 이어지고 다시 奎10643 「양근군지도」, 奎10644 「삭녕군지도」가 포함된다. 전라도 지도는 奎10432부터 奎10511까지 이어지고 奎10515 「청간진지도」는 충청도 지도에 포함시켜 두었다.

경상도 지도의 경우 첨 하나에 9~12첨, 많게는 20첨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어 경상도 지도 전체에 奎10512의 유물번호를 지정하고 그 하위의 각 지도첩에 볼륨(vol.) 1~9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경상도 지도 중 진영의 지도들은 2개의 첨으로 묶어서 따로 분류해 두었으며 경상 우수영의 관할 진포를 그린 장목포(長木浦), 미조항(彌助項) 지세포(知世浦), 조라포(助羅浦), 옥포(玉浦), 적량(赤梁) 지도들은 2첨씩 중복해서 그려져 있다. 경상도 「삼천진지도」와 「통영지도」 2첨은 현재 족자 형태로 장황되어 있으며 『1872년 군현지도』의 경상도 지도첩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奎10513-1과 奎10513-2의 유물번호를 부여하였다.

奎10514 「신흥산성도」는 경상도 경주 경계에 있는 산성을 그린 지도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서지정보에는 1872년 지도편찬 사업 때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의 원문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sup>6)</sup> 그런데 「신흥산성도」의 산 표현에 사용된 피마준과 미점준의 정교한 필법은 1872년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 『1872년 군현지도』의 소장 현황을 정리하면서는 「신흥산성도」를 전체 수량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872년 군현지도』의 소장 현황을 조사한 내용은 <표 1>에서 정리하였다.

『1872년 군현지도』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기 까지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도서의 연혁만큼 여러 번 이관되었을 것이나 정확한 이력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1872년 군현지도』의 소장 내력을 추정하였다. 조선시대 규장각(奎章閣)은 1776년 정조가 즉위한 직후 왕실도서관 겸 학술연구기관으로 창설되었다. 당시 규장각에서 수

<sup>6)</sup> 地圖集을 중심으로, 『奎章閣』15, 95면 주 8) 참조.

6) <http://e-kyujanggak.snu.ac.kr> 규장각 해제 참조.

집 보관한 자료는 역대 왕의 친필, 저술, 주요 공사의 기록, 국내외 일반도서 등이다. 규장각은 문치(文治)를 추구했던 정조(正祖)가 자신의 정치 이념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설치한 기관이었으나 정조 사후에는 실질적인 기능은 축소되고 선왕의 정치이념을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오히려 세도 가문에게 집권의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정치기구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sup>7)</sup>

고종 초기 외척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종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한 흥선대원군의 제도 개혁은 세도 가문의 명분적 역할이 되었던 규장각에도 타격을 주었다. 왕실 족보류인 『선원보첩(璿源譜牒)』 편찬과 국왕의 어진(御眞), 어제(御製), 어필(御筆) 등을 봉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종부시(宗簿寺)가 정조연간에는 그 기능이 규장각으로 이관되어 위상이 낮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종부시를 종친부(宗親府)에 합쳐서 다시 옛날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sup>8)</sup>

고종 친정(親政) 이후에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개정된 정치 제도의 상당 부분을 다시 복구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되면서 규장각의 위상을 다시 정조대와 같이 복구하여 국유도서 관리가 주 업무가 되었다. 홍문관(弘文館), 시강원(侍講院), 집옥재(集玉齋), 춘추관(春秋館) 등에 소장되었던 책들과 지방 사고(史庫)에 보관되었던 전적들이 규장각도서로 통합되어 1909년에는 규장각도서를 제실도서(帝室圖書)라 명명하며 『제실도서목록(帝室圖書目錄)』을 작성하고 ‘제실도서지인(帝室圖書之印)’을 날인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규장각은 폐지되고 1911년에 조선총독부 취조국(取調局)이 규장각 도서를 접수하였다가 조선도서에 대한 정리 및 조사사업 업무를 1912년 참사관실로 이관하였다. 1928년부터 1930년까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3차례 걸쳐 이관하였고 이때 ‘경성제국대학도서장(京城帝國大學圖書章)’을 날인하였다. 1945년 광복 직후 서울대학교가 개교하면서 규장각 도서는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으로 소관처가 바뀌게 되었다. 1946년부터 1975년까지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시기로 규장각 도서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1975년에는 서울대

7) 김문식 외, 2009 『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4-47면.

8)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4월 11일.

학교 도서관에 규장각 도서 전담 관리 부서인 규장각도서관리실이 설치되면서 규장각도서 한국본에 ‘서울대학교도서’를 날인하였다. 1992년에는 규장각도서관리실이 도서관에서 분리되어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2006년부터는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와 통합하여 지금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신설되었다.<sup>9)</sup>

『1872년 군현지도』의 책의에는 이러한 이력을 알 수 있는 여러 개의 인장(印章)이 확인된다. 우선 지도를 처음 작성한 군현에서 수령이 찍은 관직명이 새겨진 관인(官印)이다. 관인은 국가 기관과 그 관원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인장으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에 사실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1872년 군현지도』는 국가의 지침을 받아 각 군현에서 완성된 정부문서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공문서 양식의 관인 위치는 문서발행 날짜가 있는 곳에 압인(押印)하도록 하였다.<sup>10)</sup> 『1872년 군현지도』의 관인은 지도를 작성한 날짜 위에 압인하였고 작성 날짜가 없는 것은 지도명을 적은 서명(書名)위에 압인하였다. 군현의 상황에 따라서 관인이 찍혀있지 않은 것도 있다.

관인 다음으로는 1910년 한일합방으로 왕실, 국가기관, 사고에 보관되었던 도서 대부분이 조선총독부로 이관되면서 찍은 ‘조선총독부도서지인(朝鮮總督府圖書之印)’, 그리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규장각도서관리실이 설치되면서 찍은 ‘서울대학교도서(서울大學校圖書)’, 마지막으로 규장각도서관리실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독립하면서 찍은 ‘서울대학교규장각도서지인(서울大學校奎章閣圖書之印)’의 장서인이다(도 1). 그러나 규장각 도서를 제실도서라 이름 붙이며 날인한 ‘제실도서지인’과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하면서 날인한 ‘경성제국대학도서장’은 보이지 않는다.

9) 신용하, 1981 「규장각도서의 변천과정에 대한 일연구」, 『奎章閣』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9-83면; 권재철, 2011 「고문헌 보존관리의 현황과 과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고 보존환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보』133, 서울대학교, 64-81면.

10) 『經國大典』권3, 禮典, 用印, 牒呈式.



〈도 1〉 『1872년 군현지도』에 보이는 관인과 장서인

『1872년 군현지도』 중 평안도 「자산부지도」는 책의 앞면 우측 상단에 “동치십 일년오월일(同治十一年五月日)”의 날짜가 기록되고 그 위에 ‘자산부사인(慈山府使印)’이 압인되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도서지인’과 ‘서울대학교도서’, ‘서울대학교규장각도서지인’이 찍혀있다. 『1872년 군현지도』 중 강원도 「삼척부지도」는 지도의 발행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책의 앞면 상단 중앙의 “삼척부지도(三陟府地圖)” 서명위에 삼척부사의 관인인 ‘삼척부사인(三陟府使印)’이 압인되었다. ‘서울대학교규장각도서지인’이 찍혀있고 ‘조선총독부도서지인’과 ‘서울대학교도서’의 인장은 보이지 않는다. 『1872년 군현지도』 중 전라도 「전주부지도」는 책의 앞면 좌측 상단에 “전라우도전주부지도(全羅右道全州府地圖)”의 서명만 있고 지도의 발행 날짜와 관인은 없다.

『1872년 군현지도』의 일부 책의에 찍힌 인장을 통해서 소장 이력을 유추해 보면, 『1872년 군현지도』는 군현의 관인이 찍힌 정부문서로서 각 군현에서 제작된 지도가 일제히 수합되어 왕실 기관에서 관리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도서로 관리되어 오다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1872년 군현지도』의 소장 현황

지역 (지도수)	유물번호	군 현	진 영	산 성	목 장	중복	누락	비고
경기도 (40)	奎 10342~10379 奎 10643 奎 10644	38	2					*奎10350 「강화부전도」는 족자 형태로 장황되어 있다.
충청도 (52)	奎 10380~10431	52				文義	槐山, 木川, 禮山	
전라도 (84)	奎 10432~10511 奎 10515	56	28				扶安	*奎10515 「청산진지도」가 충청도 지도에 포함되어 있다.
경상도 (106)	奎 10512 (Vol. 1~9) 奎 10513-1 奎 10513-2	62	37	5	2	長木浦 彌助項 知世浦 助羅浦 玉浦 赤梁	慶州, 金海, 大邱, 尙州, 星州, 安東, 蔚山, 晋州, 昌原, 河東	*奎10512 vol.5~8 「영양현지도」, 奎10513-1 「삼천진지도」,奎10513-2 「통영지도」는 족자 형태로 장 황되어 있다. **奎10514 「신흥산성도」는 규장 각해제에 1872년 군현지도와 같은 시기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도에 보이는 화풍이 1872년보다 이를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 포함 시키지 않았다.
황해도 (42)	奎 10516~10557	23	14	5				
평안도 (85)	奎 10558~10642	40	44	1			平壤, 義州	
강원도 (28)	奎 10645~10672	26	2					
함경도 (24)	奎 10673~10696	24						
계		321	127	11	2			

(주: 양보경, 1995 「조선시대의 지방지도: 고종대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지방지도』, 서울대학  
교 규장각, 70면. 〈표〉 1872년 군현지도의 소장상태를 기초로 재작성)

### 3. 1872년 군현지도의 장황 형태

#### 1) 개장(改粧) 형태

『1872년 군현지도』의 형태적 특징은 각 군현의 지도가 첨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지도첩을 펼치면 낱장으로 된 단독 군현지도 형태가 되며 군현마다 지도의 크기가 다르지만 대체로  $105 \times 71 (\pm 10)$  cm의 대형 지도이다. 『1872년 군현지도』 이전에 편찬된 군현지도집은 각 군현에서 작성된 지도를 모아서 중앙에서 다시 필사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지도의 양식이 통일되고 도별로 묶인 지도책(地圖冊)의 형태이다. 그런데 『1872년 군현지도』가 도별로 묶어 장책(粧冊)하지 않고 첨 형태를 띠는 것은 지도의 지면이 크게 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군현별로 독립된 첨 형태의 대형 지도는 지도의 축소율이 적어 대상 지역의 상황이 한 눈에 파악될 뿐만 아니라 지도가 커졌어도 필요한 지역의 지도를 휴대하고 이동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1872년 군현지도』 소장 상태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시절 1994년에서 1996년에 걸쳐 2000매에 달하는 고지도 수리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개장(改粧)된 이후의 모습이다. 현재는 지도가 펼쳐진 상태로 2~3겹 배접되었고 두꺼운 보드지를 사방으로 둘러  $109.7 \times 80.0$  cm 크기의 액자 형태를 띠고 있다. 지도의 뒷면에 붙어있던 책의는 따로 분리하여 지도와 같은 크기와 두께로 배접하였다(도 2, 2-1). 분리된 지도와 책의는 각 10점씩 대형의 책갑에 넣어 오동나무 서장에 눕혀서 보관하고 있다. 그 중 경기도 「강화부전도」와 경상도 「영양현지도」, 「삼천진지도」, 「통영지도」는 별도로 족자 형식으로 개장되어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



〈도 2〉 「연산현지도」 개장 이후 형태  
지도 크기 70.5×52.9cm  
배접지 크기 109.7×80.0cm



〈도 2-1〉 「연산현지도」의 분리된  
책의 앞면 32.5×24.6cm  
배접지 크기 109.7×80.0cm

액자 형식으로 개장된 형태는 지도첩의 형식이었을 때 지도를 접었다 펴다 해야 하는 부분의 마찰을 줄일 수 있어 유물 보존과 관리에 장점도 있지만 유물의 진정성 부분에서 원형이 훼손되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게다가 『1872년 군현지도』를 수리할 당시 유물의 보존 처리 개념이 부족하고 보존 방법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다시 장황 형태를 복원하고자 할 경우 원형을 유추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지도와 책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개장 이전의 사진자료와 상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수리 과정에서는 클리닝이 무리하게 진행되어 고지도가 갖는 고색(古色)과 역사성이 배제되었으며 배접(襍接)에 사용된 접착제도 가역성이 낫은 재료가 사용되어 현재의 배접지를 제거해야 할 때 원본 지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전국의 군현지도를 수합하면서 지도첩마다 왼쪽 상단에 순서를 표시한 것으로 짐작되는 숫자가 기록된 붉은색 종이와 군현지도에 해당하는 지역명을 따로 붙여두었던 푸른색 종이 등의 첨지(籤紙)가 장황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유락되었다.

## 2) 장황의 원형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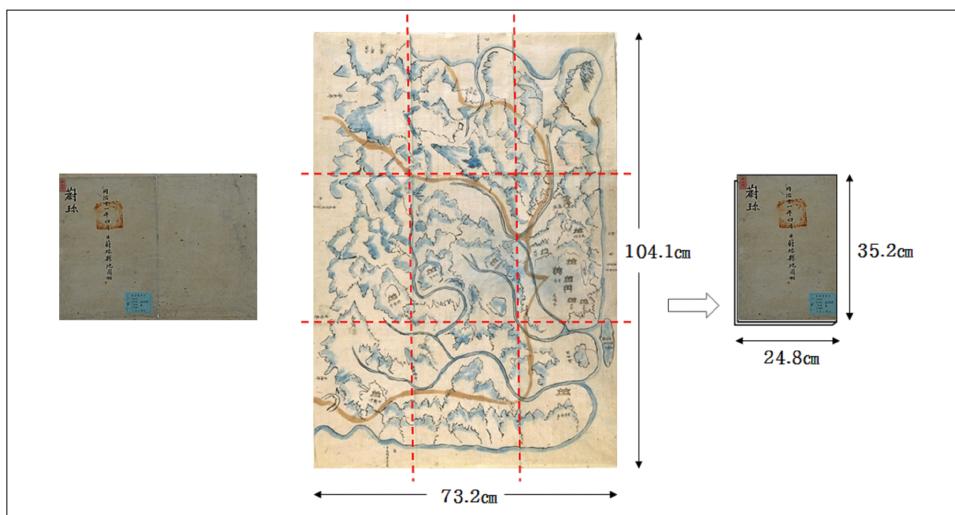
『1872년 군현지도』의 장황 형태는 상태조사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지도DB의 개장 이전 원문 이미지를 대조하여 원형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다. 지도를 접었던 선과 접었을 때의 크기, 그리고 책의의 크기를 맞추어 보면 각 군 현지도는 책의에 맞춰 일정한 폭으로 중첩한 접포(摺鋪) 형태를 띠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sup>11)</sup> 즉 처음 『1872년 군현지도』의 장황 형태는 지도의 뒷면에 책의가 붙고 접으면 펼쳐지는 형태이다. 책의의 위치는 지도의 뒷면 중심 부분 또는 가장자리 부분에 바르고 책의의 크기에 맞춰서 위, 아래,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몇 번씩 접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펼치면 대형 지도이지만 접으면 독립된 펼 헤가 된다(도 3).

그런데 『1872년 군현지도』는 지도마다 크기가 서로 다르며 크기가 가장 작은 지도는 강원도 「춘천부지도」로 세로×가로가 34.4×50.0cm이고, 크기가 가장 큰 지도는 경상도 「영양현지도」로 세로×가로가 146.7×114.0cm이다. 그러나 지도 크기의 편 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접었을 때 군현지도첩의 크기는 세로×가로가 35.0×25.0cm로 동일하며 오차는 0.1~0.2cm에 불과하다(도 4). 이처럼 지도의 크기와는 별개로 펼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춘 것은 여러 개의 지도첩을 포갑(包匣)에 넣어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대형의 지라도 휴대의 편의성을 추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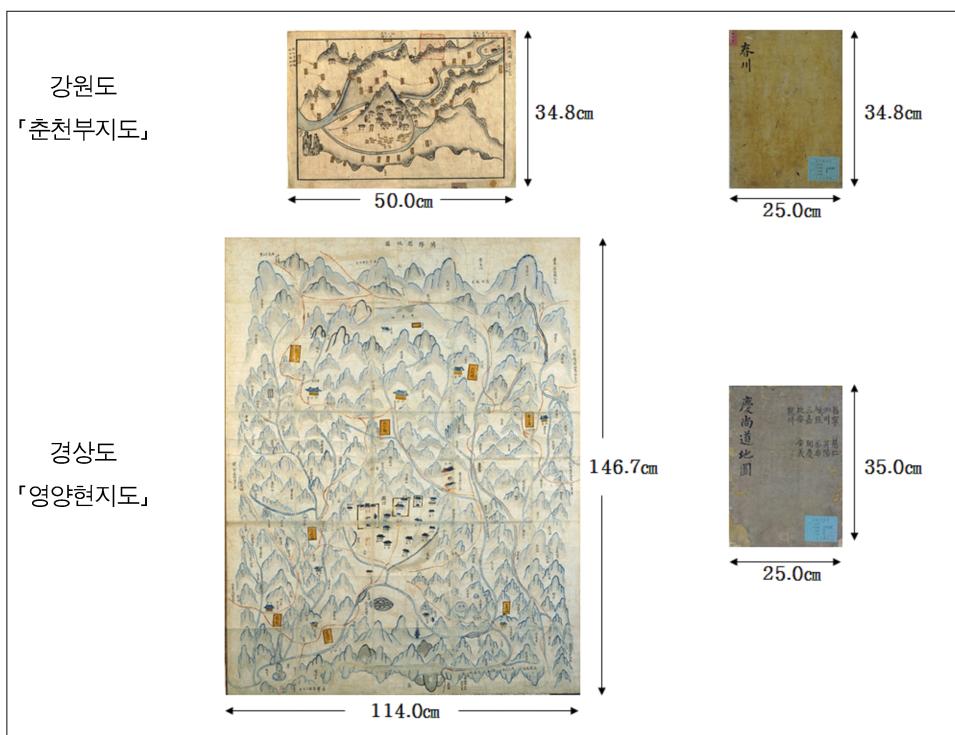
이는 『1872년 군현지도』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국가의 뚜렷한 지침이 있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펼을 보관했던 포갑은 확인되지 않으나 여러 권의 책을 싸는 포갑은 조선후기에 중국에서 들어온 서책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이며 독립된 여러 권의 펼을 묶음별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갑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872년 군현지도』의 펼 형태는 지도의 크기와 방향 그리고 접히는 면의 수에 따라 2면 접포, 3면 접포, 절첩장(折帖裝)으로 구성되어 있다.

---

11) 지도류와 같은 疊物의 접포류는 鋪를 단위용어로 기술한다.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저, 2003 「제4장 고서와 고문서」, 『韓國目錄規則』, 한국도서관협회, 187면.



〈도 3〉 강원도 「울진현지도」의 장황 형태 원형 복원도



〈도 4〉 『1872년 군현지도』의 지면과 책의 크기 비교

### ① 2면 접포

『1872년 군현지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첨 형태는 2면 접포 형식이다. 책의의 앞면과 뒷면이 나란히 지도 뒷면에 붙어 책의 크기에 맞춰 접으면 가로 변이 25 : 25의 같은 비율로 접하게 된다. 지도의 크기 및 방향에 따라 접하는 면의 수와 순서가 달라지지만 접었을 때 첨의 형태는 동일하다. 지도 뒷면에 붙는 책의의 위치는 일정하지 않고 지도 뒷면의 정 가운데 붙게 되거나 가로변이나 세로변을 기준으로 가장자리에 붙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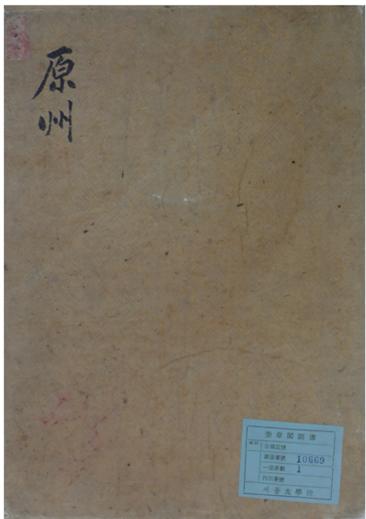
『1872년 군현지도』 중 경기도 지도, 전라도 지도는 책의가 지도 뒷면의 가운데 붙어 세로변을 두 번 접고, 지도 길이에 따라 가로변을 두 번 또는 세 번 접게 되는 경우와 세로변의 중심 가장자리에 붙게 되는 경우는 세로변을 한 번 접고 위, 아래로 가로변을 접었다. 충청도 지도와 황해도 지도, 함경도 지도는 책의가 지도의 세로변이나 가로변에 치우쳐 붙어있어 지도의 크기에 따라 가로변을 한 번 접고 세로변을 두 번 접거나 가로변을 세 번 접고 세로변을 두 번 접는다. 강원도 「춘천부지도」와 같이 작은 지도는 지도의 크기와 책의를 펼친 크기가 동일하여 첨을 한 번만 펼치면 지도 면이 나타난다(도 5).

2면 접포 형식의 책의는 경기도 「죽산지도」의 책의가 견(絹)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이재질(紙衣)이다. 쪽색이나 황색, 붉은색으로 선염한 감지(紺紙), 황지(黃紙), 흥지(紅紙)와 선염한 뒤에 능화문(菱花紋)이 새겨진 능화지(菱花紙) 그리고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종이 등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로 사용된 종이는 전적 장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황지가 대부분이다. 황지의 책의는 황염(黃染)이 연하게 된 것도 있고 진하게 된 것도 있는데 대체로 염색이 고르지 못하다.

전라도 「함평현지도」	경기도 「연천현지도」	충청도 「제천현지도」
황해도 「재령지도」	황경도 「홍원현지도」	강원도 「춘천부지도」

〈도 5〉 『1872년 군현지도』의 2면 접포 형식 중 책의의 위치

또한 황지에는 능화문을 새긴 능화지가 주로 사용되었다. 능화지는 조선서책의 책의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여러 겹의 한지를 붙여서 만든 두꺼운 종이에 여러 가지 문양을 요철로 장식한 후 밀랍을 발라 광택을 내는 방법이다. 『1872년 군현지도』 책의에 보이는 능화지는 조선후기 능화문에 많이 사용되는 문양으로 ‘군’자



〈도 6〉 『1872년 군현지도』 책의에 사용된  
‘사격만자문’의 능화지



문양을 비스듬하게 기울여 규칙적으로 배열한 목판을 새겨 누르고 밀랍을 칠한 ‘사격만자문’이 주로 사용되었다(도 6). 이 밖에도 19세기 후반에 많이 보이는 매화꽃과 덩굴문양 또는 국화꽃과 덩굴문양 등의 능화문을 판화형식으로 찍은 것이 있어 조선말기 서책 장황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sup>12)</sup>

『1872년 군현지도』 책의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지만 사용 된 능화문양과 재질은 도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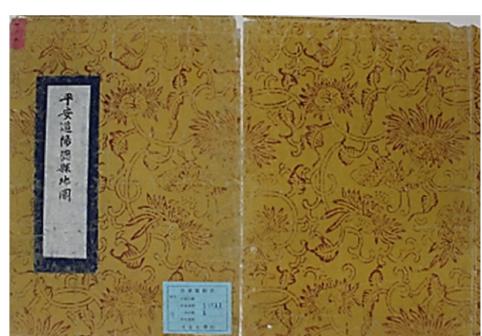
다르게 제작되었다. 경기도 지도는 황지, 능화지, 감지가 고르게 사용되었고 평안도 지도는 다양한 색지가 사용되었다. 특히 평안도 지도는 「안주목소속노강진지도」, 「임해진지도」, 「관산군지도」, 「개천군지도」, 「개천군속금성진지도」, 「안주목지도」, 「숙천부지도」의 책의에 감지가 사용되었고 「중화부지도」, 「순안현지도」, 「자산부지도」에는 흥지를 사용하여 다른 도와 비교하여 책의가 다양하다. 「강계자성후주지도」는 비단바탕에 그린 지도로, 책의는 미색의 능화지를 사용하고 지도의 서명은 쪽으로 염색한 비단에 따로 기록해서 첨의 왼쪽 상단에 붙였다. 「영유현지도」는 민화풍으로 그려진 지도인데, 책의에도 오침안선장(五針眼線裝)을 꾸미듯이 붉은 색으로 다섯줄의 책실을 그려 넣었다. 책실을 그린 안료는 지도에 도로를 그려 넣은 붉은색 안료와 같은 것으로 보아 지도의 제작자가 책의까지 함께 꾸민 것으로

12) 조선시대 시기별 능화문에 대해서는 남권희, 2006 「조선시대 고서의 책의문양」, 『능화판』, 대원사, 377-391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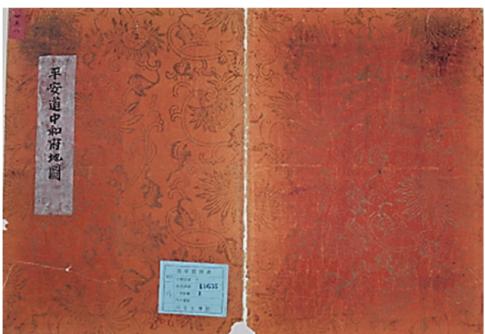
보인다. 평안도 지도 책의의 능화문에는 사격만자문과 함께 국화꽃, 덩굴, 나비문 양 등도 함께 보인다(도 7-10). 이처럼 군현별로 책의의 재질과 문양이 다른 것은 지도의 제작에서 척의 장황까지 모두 각 군현에서 자체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 7〉 평안도 「개천군지도」 책의



〈도 8〉 평안도 「양덕현지도」 책의



〈도 9〉 평안도 「중화부지도」 책의



〈도 10〉 평안도 「영유현지도」책의

반면에 경상도 지도와 전라도 지도, 황해도 지도의 책의는 대부분 황지에 ‘사격 만자문’을 새긴 능화지로 통일되어 꾸며져 있다. 특히 경상도 지도와 전라도 지도는 책의의 형식이 통일되어 있어 각 감영을 통해서 한꺼번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상도 지도는 만자능화문(卍字菱花紋)을 새긴 황색으로 선염된 종이가

사용되었으며 지도 첨에 포함된 지도들의 지명을 우측 상단에 기록하였다(도 11, 12). 전라도 지도는 황색으로 선명하게 선염된 황지에 만자능화문으로 책의가 통일되어 있으며 좌측상단의 제명(題銘)에는 전라도(全羅道), 전라우도(全羅右道), 전라좌도(全羅左道)를 구분하였다(도 13, 14).



〈도 11〉 경상도 지도 책의奎10512 vol. 3



〈도 12〉 경상도 지도 책의奎10512 vol. 8



〈도 13〉 전라도 「장성부지도」 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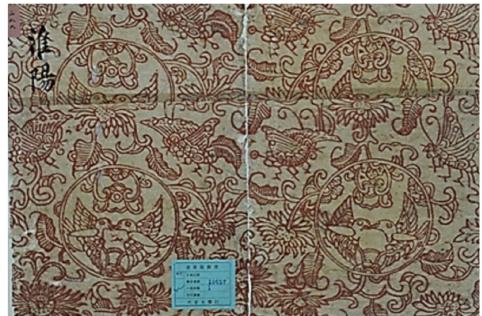
〈도 14〉 전라도 「남원부지도」 책의

강원도 지도와 충청도 지도의 책의는 능화문이 없는 황색으로만 선염된 황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강원도 지도 중 「금성지도」와 「회양부지도」의 책의는 판화기법으로 문양판을 찍어 넣은 능화지가 사용되었다. 이 두 지역의 지도는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나 책의에 새긴 능화판의 문양은 각각 다르다. 「금성

지도』 책의에는 양각된 매화꽃과 덩굴문양이 보이고 「회양부지도」 책의에는 국화와 덩굴, 나비문양의 바탕과 연속해서 배치한 원형 안에 한 쌍의 새가 있다(도 15, 16). 강원도 지도 중 「평해군지도」와 「이천지도」는 지도에 그런 물길이나 도로가 책의에 베어나 있어 접포형태의 첨이 미리 만들어지고 그 첨에 지도를 그렸을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함경도 지도의 책의는 「온성부지도」와 「단천지도」에서 퍼지(皮紙)가 사용된 책의가 섞여있는 등 종이의 재질이 대체로 거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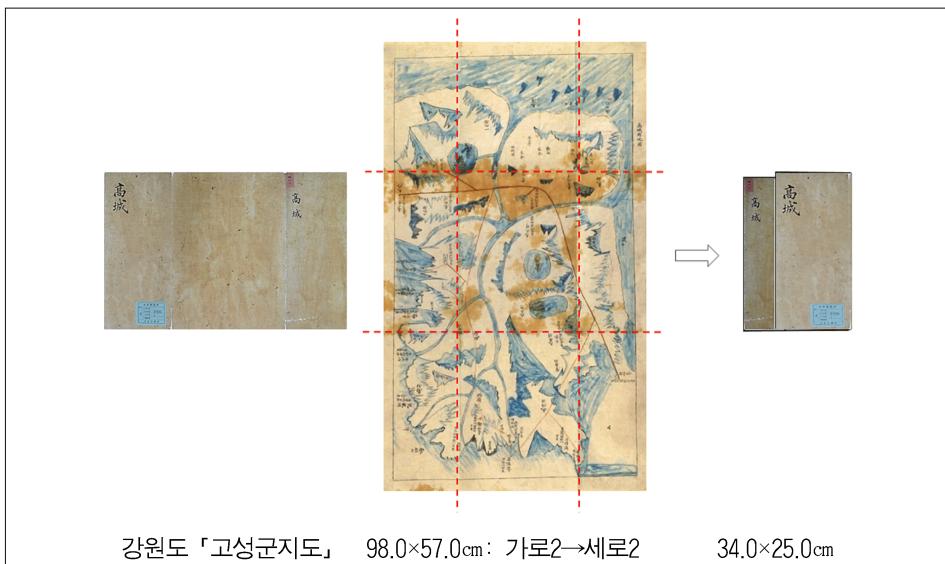
〈도 15〉 강원도 「금성지도」 책의



〈도 16〉 강원도 「회양부지도」 책의

## ② 3면 접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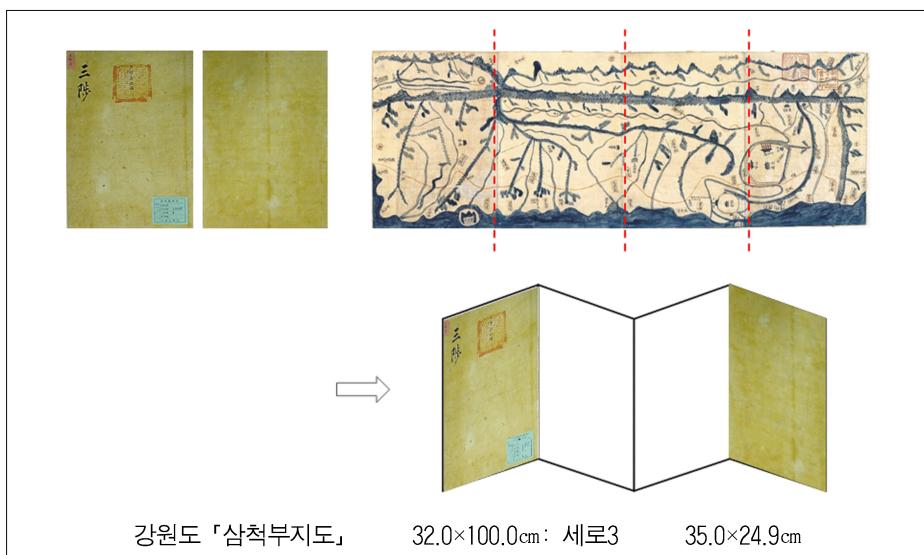
『1872년 군현지도』 중에서 강원도 지도는 첨의 형태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중 책의가 3면으로 접히는 3면 접포 형식은 첨을 펼쳤을 때 가로길이가 15 : 2 5 : 13으로, 왼쪽 면을 덮고 나머지 오른쪽 면을 접는다. 이러한 첨 형태는 강원도 지도에서만 확인되는데 「평해군지도」, 「고성군지도」, 「철원구방지도」, 「양구현지도」, 「낭천지도」는 책의를 지도 뒷면 중앙에 바르고 지도 위, 아래의 남은 부분을 먼저 접고 왼쪽이나 오른쪽을 접은 뒤 나머지 한 면을 덮는다(도 17).



강원도 「고성군지도」 98.0×57.0cm: 가로2→세로2 34.0×25.0cm

〈도 17〉 『1872년 군현지도』의 3면 접포 형식

### ③ 절첩장(折帖裝)



강원도 「삼척군지도」 32.0×100.0cm: 세로3 35.0×24.9cm

〈도 18〉 『1872년 군현지도』의 절첩장

절첩장은 세로로 같은 폭을 여러 번 접은 병풍 형식이다. 이러한 형태는 면을 접어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다 펼쳐서 전체를 볼 수도 있다. 강원도 「삼척부지도」와 「삼척진영지도」는 지면이 가로로 길게 제작되어 절첩장으로 꾸몄으며 지도의 양끝을 5cm 정도 뒤로 접어 책의를 붙였던 풀 자국이 남아있다(도 18). 「강릉부지도」, 「평창군오면지도」, 「안협현지도」는 지도의 위, 아래면을 먼저 책의 길이에 맞추어 접고 세로변을 병풍처럼 접는 형식이며 함경도 「고원군지도」는 지도 뒷면의 상단과 하단에 각각 책의의 앞, 뒷면을 따로 붙이고 세로변을 세 번 접어 책의 크기에 맞춘 뒤에 병풍식으로 접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1872년 군현지도』의 첹 형태는 대부분 2면 접포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강원도 지도는 2면 접포 외에 3면 접포 형식과 절첩장으로 제작되었다. 책의에 사용된 종이는 경상도 지도, 전라도 지도, 황해도 지도에서는 주로 황지에 '사격만자문'의 능화지로 통일되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여러 가지 문양의 능화지와 색지가 사용되었다. 평안도 지도의 책의는 황지, 감지, 흥지 등의 다양한 색지가 사용되었으며 능화문양도 국화꽃, 덩굴, 나비 문양 등을 사용하여 가장 화려하게 꾸며졌다. 강원도 지도의 책의에는 종이의 재질이 거칠거나 두께가 얇은 종이를 이어붙인 경우가 많이 보이고 종이의 선염된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도 많다. 함경도 지도에도 책의에 티가 많이 보이는 피지(皮紙)도 사용되었다.

#### 4. 결론

『1872년 군현지도』는 각각의 군현지도가 독립된 첹 형태로 제작되어 합쳐진 전국 군현지도집이며 지도첩 책의에 찍힌 관인을 통해서 1차 제작 주체가 지방 수령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각 군현에서 완성된 『1872년 군현지도』는 첹을 펼치면 낱장의 대형 단독 군현지도 형태가 된다. 그러나 군현마다 지면의 크기가 다르고 접는 방법 등 첹의 형식과 제작에 사용된 재료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국가에서 편찬한 이전의 군현지도집과는 달리 감영을 통해서 중앙에서 다시 정서되지 못하고

지도를 제작하고 장황하는 단계까지 각 군현에서 자체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72년 군현지도』 중 경상도 지도와 전라도 지도는 군현에서 찍은 관인이 보이지 않고 장황에 사용된 재료나 형태가 통일되어 있어 경상도와 전라도 각 감영에서 군현의 지도를 모아 함께 장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상도 지도는 한 권의 첨에 여러 장의 지도가 둑여있는 형태이며 책의에는 첨에 수록된 지도의 지명을 기록하였다. 전라도 지도는 황색능화지로 책의가 통일되었으며 좌측 상단의 제명에는 전라도, 전라좌도, 전라우도를 구분하였다.

『1872년 군현지도』의 첨 형식은 대부분 2면 접포 형식이다. 단 강원도 지도는 일반적인 2면 접포 형식이외에 3면 접포 형식과 절첩장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책의에 사용된 종이는 경상도 지도, 전라도 지도, 황해도 지도에서는 주로 황지에 ‘사격만자문’의 능화지가 사용되었지만 그 외는 지역마다 다양한 재질과 능화문양이 확인된다. 특히 평안도지도의 책의는 황지, 감지, 흥지 등의 색지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능화문양도 국화꽃, 덩굴, 나비 문양 등이 새겨져 가장 화려한 장황을 보여준다.

『1872년 군현지도』에는 매우 거친 재질의 종이가 사용된 예도 많이 보인다. 황해도 지도는 종이 발이 거의 드러날 만큼 얇은 두께의 종이가 사용되거나 규격이 큰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작은 종이를 여러 조각 이어붙인 경우도 있다. 강원도지도는 책의에도 종이의 재질이 거칠고 얇은 두께의 종이를 이어붙인 경우가 많이 보이고 선염된 상태가 고르지 못한 종이도 많다. 함경도지도 역시 책의에 티가 많이 보이는 꾀지(皮紙)를 사용하여 종이가 많이 거친다. 도별로 제작된 『1872년 군현지도』는 각 도와 도내 군현의 사정에 따라 제작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반면 군현마다 다른 크기와 다양한 제작 방식을 보이는 『1872년 군현지도』는 지도를 접어서 접포의 형태를 띠었을 때는 첨의 크기가 35.0×25.0cm로 동일하다. 지도의 크기와는 별개로 책의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춘 것은 군현지도첩을 모아 포갑에 넣어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군현별로 독립된 지도첩은 지역의 정보가 상세하게 담긴 지도를 필요에 따라 휴대하고 이동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다. 이는 이전의 읍지도나 군현지도집과 비교하여 크기가 커진 『1872년 군현지도』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이미 기획 단계에서 뚜렷한 지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논문투고일(2015. 4. 22),	심사일(2015. 5. 21),	게재확정일(2015. 6. 11)
---------------------	-------------------	--------------------

### 참고문헌

#### 〈사료〉

- 『奎章閣志』
- 『朝鮮王朝實錄』
- 『輿地圖書』
- 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 2009 『국역 여지도서』 1~50, 디자인흐름.
- 한국학문헌연구소, 1982-1989 『邑誌』 제1~19권, 아세아문화사.

####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2013 『한국사32 조선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
- 김명숙, 2004 『19세기 정치론 연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 김문식 외, 2009 『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남권희, 2006 「조선시대 고서의 표지문양」, 『능화판』, 대원사.
-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조선후기 지방지도-경기도편』, 민족문화.  
\_\_\_\_\_, 2005 『조선후기 지방지도-충청도편』, 민족문화.
- \_\_\_\_\_, 2005 『조선후기 지방지도-경상도편』, 민족문화.
- \_\_\_\_\_, 2005 『조선후기 지방지도-전라도편』, 민족문화.
- \_\_\_\_\_, 2005 『조선후기 지방지도-황해도편』, 민족문화.
- \_\_\_\_\_, 2005 『조선후기 지방지도-평안도편』, 민족문화.
- \_\_\_\_\_, 2005 『조선후기 지방지도-강원도, 함경도편』, 민족문화.

- 연갑수, 2001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8 『고종대 정치변동 연구』, 일지사.
- 이찬, 1991 「조선시대의 지도책」,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1990 『조선정치사 1800~1863』 상·하, 청년사.

### 〈논문〉

- 권재철, 2011 「고문헌 보존관리의 현황과 과제-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고 보존환경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보』133, 서울대학교, 64-81면.
- 김기혁, 1995 「조선시대의 지방지도-고종대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지방 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69-70면.
- \_\_\_\_\_, 2007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조선 후기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30-3, 한국학중앙연구원, 119-142면.
- 김성희, 2015 「1872년 군현지도의 제작과 회화적 특징: 전라도지도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2 「1872년 강원도지도의 회화적 표현방식-양양읍지도를 중심으로」, 『한국 고지도연구』4-1, 한국고지도연구학회, 57-74면.
- 김정임, 200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관인 고찰」, 『조선왕조의 관인』, 국립고궁박물관.
- 박준호, 2009 「조선시대 행정 문서의 어보, 관인, 서명」, 『조선왕조의 관인』, 국립고궁박물관.
- 배우성, 2005 「1872년 군현지도 제작의 배경」, 『조선후기 지방지도: 경기도편 해설색 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7-9면.
- 변승주, 2006 「여지도서의 성격과 도별 특성」, 『한국사학보』25, 고려사학회, 435-464면.
- 신용하, 1981 「규장각도서의 변천과정에 대한 일연구」, 『규장각』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9-83면.
- 양보경, 1987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1992 「18세기 備邊司地圖의 고찰-奎章閣 소장 道別 郡縣地圖集을 중심으로」, 『奎章閣』15, 95면
- 연갑수, 1996 「병인양요와 흥선대원군 정권의 대응 : 《巡撫營膳錄》을 중심으로」, 『군사』33, 국방군사연구소.
- \_\_\_\_\_, 1997 「대원군 집권기 국방정책 : 지방포군의 증설을 중심으로」, 『한구문화』 20, 규장각한국학연구소.
- 윤희면, 1999 「고종대의 서원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10, 한

- 국근현대사학회, 151-182면.
- 이승일, 2001 「조선총독부의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수집·분류 활동」, 『기록학연구』 4, 한국기록학회, 93-130면.
- 임재찬, 2002 「삼군부의 복설과 역할」, 『신라학연구』 6, 위덕대학교부설 신라학연구소.
- 송찬섭, 2000 「대원군시기 사창제의 운영실태-충청도 청산현 사창문서 분석」, 『고문서연구』 17-1, 한국고문서학회, 369-388면.
- 조계영, 2009 「조선후기 중국서책의 구입과 장황의 변화」, 『한국문화』 4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1-43면.
- 천주현·김성희, 「지류문화재의 보존처리」, 『박물관보존과학』, 국립중앙박물관, 2002.

**Abstract**

The preservation and bookbinding technique of Joseon county  
prefectural maps of 1872

Kim, Sung Hee

The prefectural and county maps of 1872 are the last product of Joseon government-led efforts and those are currently hous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Institute. The part of the map that shows the last products were completed in 4 month between March and June of 1872 and the collection comprises of 461 maps. They are notable for the way each region is painted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each of a different size and in a different style while previous maps compile as form of books. The bookbinding technique of the maps can be an important clue to find that they were produced for a single purpose and method of use. However, the 1872 map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Institute possession are not the originals, but are recrea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urpose of cartography and method of using maps through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1872 original maps.

**Key words** : county and prefectural maps of 1872, a map compiled by government,  
provincial map, Heungseon Daewongun, Book Binding